

# 제7대 정보통신부 장관 취임사



친애하는 정보통신가족 여러분!

뜻밖에도 제가 정보통신부장관이라는 중책을 맡아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고 보니 영광이라기보다는 송구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특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낄 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정보통신분야에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 나라의 정보화 촉진과 정보통신발전에 작은 힘이나마 신명을 바쳐 이바지할 각오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의 이런 각오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가족 모두의 따뜻하고 열성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탁월한 식견과 추진력으로 정보통신행정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퇴임하신 전임 안 병엽 장관님께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정보통신가족 여러분!

저는 그 동안 우리 정보통신의 발전과 함께 해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룩한 여러 업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뜨거운 열정과 사명감으로 21세기 우리 민족의 진운을 가름할 지식정보사회 건설에 온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정보통신망을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산업은 이제 수출, 고용 등 우리 경제 발전의 핵심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다른 산업 분야의 부진을 메우며 우리 경제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가족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성과에 만족할 수만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사명과 역할을 우리에게 부여하고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정보통신부 직원 여러분, 그리고 관련 업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직 업무 파악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할 입장이 못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인터넷에 의한 경제·사회 발전의 급속한 변화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등장으로 사회 전반의 구조를 인터넷 시대에 적합하도록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 마련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경제의 급격한 하강과 이에 동반한 국내 경기의 침체는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고 체감경기를 악화시키는 등 경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통신부의 역할과 사명은 지식정보화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정보화 촉진과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통한 어려워진 경제의 재도약을 이루어 세계 일류 국가로 나아가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선 국내 산업 전체가 어려운 가운데 정보통신산업이 우리 경제의 활로를 개척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해야하겠습니다. 특히, 정보통신 전문인력의 양성은 정보통신산업 발전의 핵심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인력의 부족이 정보통신산업의 발전, 나아가 국가 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전문인력 양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4세대 이동통신, 광통신, 정보가전 등 차세대 전략 기술을 선택하여 집중 개발하고 우리 기술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자칫 중요성을 간과하기 쉬운 우정분야에도 관심을 쏟겠습니다. 전국에 거미줄처럼 깔려있는 우체국을 지식기반 사회의 새로운 물류와 금융 기지로, 지역정보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 정보통신가족 여러분!

따뜻한 인간미를 바탕으로 한 직원간 회합의 정신이 정보통신부의 오랜 전통이자 자랑이라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직원 상호간에 깊은 이해를 통하여 이 직장을 더욱 보람된 삶의 터전으로 가꾸어 나가는데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체신노동조합과는 지금까지 긴밀한 협조아래 공존 공영해 온 전통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원만한 노사 관계의 유지에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이 솔선해 참신하고 창의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투지와 열정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추진하는데 따른 어려움을 해결하고 대외적으로 여러분의 정책을 널리 알려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에 주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정보통신가족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이만 취임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 3월 26일

제7대 정보통신부 장관 양승택

